

지역 소식통

정읍시농기센터

신규 농업인 교육개강

정읍농기센터가 귀농·귀촌인과 예비 농업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10회, 40시간의 기초영농교육에 들어갔다.

센터는 지난 24일 제1강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개강식을 열었다. 교육은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다.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식량작물과 과수 등 작목별 재배기술, 유용미생물 활용법 등을 배운다.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와 최신 농업 흐름, 인공지능 활용도 교육한다. 농지법과 세무·회계, 농산물 홍보와 판매 전략 등도 다룬다. 특히 농지 관련 법률과 세무 분야를 교육에 포함했다. 굴착기와 관리기 등 농기계 안전사용 실습도 진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보호수 · 노거수

병해충 3차 긴급 방제

부안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잦은 집중호우로 면역력이 떨어진 지역 내 소중환 녹색 문화자원을 지키기 위해 관내 역사적·생태적 가치가 깊은 보호수와 노거수를 대상으로 오는 9월 4일까지 제3차 병해충 긴급 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방제는 벚나무와 고문다습한 환경 속에서 급증하는 병해충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름철 기상 변동이 심해짐에 따라 수목이 치명적인 생육 저하나 고사 방지를 위해 관내에 총 95개소 179그루의 보호수 및 노거수를 대상으로 빈틈없는 예방과 방제망을 가동하고 있다.

중점 방제 대상은 매년 나무의 수세를 약화시키는 주범인 진딧물과 응애류 등 돌발 병해충이다.

군은 전문 방제 인력을 투입해 수목 구석구석 약제를 정밀 살포하고, 폭염 속 수목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서남권 공동 관광브랜드 구축한다

고창 · 정읍 · 부안군 손 잡고... 브랜드 네이밍 선정 · BI 개발 · 상품 · 홍보마케팅까지

고창군과 정읍시, 부안군이 전북 서남권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알리기 위한 공동 관광브랜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고창군은 정읍시·부안군과 함께 3개 시군의 역사·문화, 생태적 가치와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전북 서남권 관광브랜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의 경계를 넘어 인접 지

체가 서로의 자원과 강점을 활용해 공동의 경쟁력을 키우는 지역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공동 관광브랜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3개 시군이 함께 서남권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는 서남권의 정체성과 관광 매력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공동브랜드 네이밍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네이밍 후보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후보를 압축하고, BI(Brand Identity)와 키비주얼 개발을 통해 최종 관광브랜드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브랜드는 관광상품과 코스, 굿즈, 국내의 홍보마케팅 등에 폭넓게 활용하고, 3개 시군의 공동 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동네점빵, '찾아가는 통합돌봄'으로 영역 확장

이동형 물품 판매 · 지역 복지서비스와 결합... 군 사회복지과와 연계 응급꾸러미 · 밀반찬 배송 등

'고창동네점빵'이 농촌마을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이동형 판매서비스를 넘어 자활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전달을 연계하는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고창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인 '고창동네점빵'은 마트 이용이 어렵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가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이동형 마트다.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과 지역업체 상품도 함께 판매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물품 판매를 넘어 지역 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며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고창군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과 연계해 응급꾸러미 전달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과도 협력해 퇴원환자를 위한 밀반찬 배송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거동이 어렵거나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는 주민에게



고창동네점빵'이 농촌마을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이동형 판매서비스를 넘어 자활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전달을 연계하는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필요한 물품과 복지서비스가 더 가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복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활참여자에게는 안정적인 일

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생활편의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공동체 14개 제품 한자리에... 어울림 장터 200명 참여

'2026 공동체 프리마켓 어울림 한마당' 행사 성공적 마무리

정읍지역 공동체들이 만든 수공예품과 농특산물 가공품 14개가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한 공동체 장터에서 선보였다. 정읍시가 후원하고 정읍시공동체협의회가 주관한 '2026 공동체 프리마켓 어울림 한마당'이 지난 22일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2년 시작된 '정읍시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찾아내고 지원한 지역 공동체들이 그동안 쌓은 활동 성과를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지역 공동체들이 정성껏 만든 수공예품과 지역 농특산물을 활

용한 가공품 등 우수 제품 14개가 전시됐다. 시민들은 제품을 둘러보며 공동체의 활동 내용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성과를 확인했다.

시민과 공동체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 놀이와 다양한 여가 활동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한데 어울려 소통하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하서다목적체육센터 준공

실내체육관 · 사무실 · 샤워실 등 갖춰... 이용 편리한 체육환경 조성

부안군은 25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 의원, 정동일 부안군체육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서다목적체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하서다목적체육센터는 지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했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65.41㎡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에는 실내체육관과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을 비롯해, 소방·냉난방·방송설비 등이 갖춰져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안군은 군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하서 다목적체육센터는

부안읍·줄포·행안·백산·보안에 이어 여섯 번째로 문을 연 다목적체육센터다.

권익현 군수는 "하서다목적체육센터가 주민의 일상 체육활동과 소통을 위한 생활체육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운영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서다목적체육센터는 주민 생활체육과 동호회 활동, 주민 화합행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개관 이후 시설 이용현황과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기적 시설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추진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민주평통 부안군협의회, 3분기 정기회의 개최

제22기 신규자문위원 위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회장 임장섭)는 지난 24일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제3분기 정기회의 및 제22기 신규 자문위원 · 지역대표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하고, 평화통일 기반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 지역 단위의 통일 역량을 결집하고, 헌법 제92조에 근반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새롭게 위촉된 제22기

자문위원과 지역대표들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으로 엄숙하게 진행되었으며, 신규 위원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 추진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할 것을 엄숙히 다짐했다.

이어진 3분기 정기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상생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정책 건의와 논의가 이어졌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망을 바탕으로, 지역 내 건전한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평화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기적의도서관, '북스타트 가족의 날' 성료

정읍기적의도서관에서 영유아와 부모 30팀이 그림책을 읽고 음악놀이와 마술풍선을 체험하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정읍시는 지난 22일 정읍기적의도서관에서 12~36개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북스타트 가족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유아가 책과 자연스

럽게 친해지고 부모와 자녀가 책을 매개로 교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가족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림책 읽어주기를 시작으로 몸을 움직이며 리듬을 익히는 음악놀이에 참여했다. 다양한 모양의 풍선을 직접 만들어보는 마술풍선 체험도 아이들의 호기심과 즐거움을 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